

공연예술학과에 자리잡지 못한 실용무용 전공

2020년 5월 생활무용학과와 명칭이 ‘공연예술학과’로 변경됐다. 명칭변경과 함께 ‘실용무용’ 전공이 신설되면서 현재의 공연예술학과는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와 함께 4가지 세부 전공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최근 실용무용 전공에 대한 논란이 접화되기 시작했다. 실기연습 공간의 부재, 전공 실기 수업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들이 발생했다.

실용무용 전공의 신설 이유부터 그로 인해 파생된 문제점들을 분석했다.

학과 명칭변경과 잇따른 반대

명칭변경에 대해 생활무용학과에서는 강력한 반대를 표했다. 생활무용학과 학생들의 대자보 시위와 함께 교수진들의 반대 또한 강력했다. 이들이 이처럼 거세게 반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입학 정원 TO의 감축이다. 과거의 생활무용학과나 현재의 공연예술학과 모두 입학 정원은 30명이다. 문제는 공연예술학과에 실용무용 전공이 신설되었지만, 입학 정원의 수가 그대로인 것이다. 결국, 다른 전공의 인원을 감축해 실용무용 선발 인원 TO를 만들어야 했다. 그렇다 보니 기존의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의 인원이 축소된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생긴 것이다.

두 번째는 전문성의 문제다. 이전의 생활무용학과는 약 10년간 ‘순수무용’이라고 불리는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의 3가지 전공을 유지해 왔다. 순수무용은 통상적으로 ‘정통무용’이라 불리고 그 외의 무용을 실용무용이라고 부른다. 생활무용학과는 오랜 세월 동안 전공 실기 시간과 예산, 강의실, 전임 교수 등 학과의 기본적인 틀을 정통무용에 맞춰왔다. 그러나, 실용무용 전공 신설



반대합니다.

학생들의 목소리 들어주세요.
원치 않는 구조조정 부당합니다.

한국체육대학교 생활무용학과

소식을 접한 생활무용학과 학생회에서는 두 무용에서 각각 사용되는 클래식과 대중가요의 차이를 예를 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생활무용학과와 구조조정이 그 원인이다. 우리 대학은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정원감축을 권고받는데, 생활무용학과는 취업률, 학과 운영 결과 등의 여러 사항을 수치화한 결과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된 것이다. 구조조정の内容은 총 수용인원에서 10명 감축이다. 그러나 생활무용학과에서 체육 인제 양성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원감축 예외를 요청했지만, 교육부의 미승인으로 정원 10명을 반납했다. 이에 생활무용학과는 존속 방안과 구조조정으로 학과 명칭변경과 커리큘럼 수정이 진행된 것이다.

한국체육대학교의 구조조정은 생산성본부, 대학 구조조정 TF팀, 기획위원회 등에서 진행하는 조정 논의에 따라 개편된다. 당시 조정된 생활무용학과와 구조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때 구조조정 사항 중 생활무용학과에서 공연예술학과로의 명칭변경이 포함됐고, 공연예술학과와 인원은 한국무용 8명, 현대무용 8명, 발레 8명, ‘실용무용 전공 신설 6명’으로 총 3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라는 사항에 따라 실용무용이 신설되었다.

결과적으로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생활무용학과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생활무용학과에서는 이를 반대했지만 승인되지 않았다. 결국, 구조조정 결과 공연예술학과로의 명칭변경 및 실용무용 전공 신설이 결정된 것이다.

구조조정에 휩쓸려 어영부영 신설된 실용무용

그러나 이러한 구조조정에는 풀리지 않는 의혹이 존재한다. 10명의 인원을 감축한 상황에서 왜 실용무용 전공을 신설했을까. 실용무용의 입학 TO는 타 전공들의 입학 정원을 줄여 만들어냈다. 앞서 언급했듯이 생활무용학과와 취업률과 학과 운영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취업률 강화에서 가장 중요한 전공 전문성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러나 구조조정 사항에는 기존 전공(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당시 생활무용학과 학생회에서는 전문성 문제를 이유로 구조조정에 반대했고, 안용규 총장과 의 면담을 시도했으나 일정 조율의 문제로 무산됐다.

여기서 문제점이 한 가지 더 발생한다. 왜 실용무용이었어야 했을까. 공연예술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생활무용보다 폭넓은 분야를 포괄한다. 공연 연출, 무대 조명, 공연 제작, 뮤지컬, 연극 등이 모든 것이 공연 예

술로 통칭된다. 실용무용도 몸을 활용하여 움직임의 미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타 전공들과 공통점이 존재하지만, 차이점이 더 많다. 그중 가장 큰 차이점은 실용무용은 많은 종류의 무용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락킹, 재즈, 비보잉, 브레이킹 댄스 등 다양한 부분집합 무용들이 모여 실용무용이라는 전체집합을 만들어낸다. 각각의 무용에서 추구하는 동작이나 예술성이 다르기에 현재 재하 중인 12명의 실용무용 학생들은 세부 파트가 각각 다르다. 이렇게 다양한 전공이 존재하는 실용무용은 전공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는다는 특수성 때문에 감사 채용, 전문화 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처럼 타 전공의 TO를 줄이고 기존 전공들과의 차별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라도 실용무용 전공을 신설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 학교 측에서는 학칙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태이다.

2018년			2021년		
단과대학	학과	입학정원	단과대학	학과	입학정원
생활체육대학	체육학과	240	생활체육대학	체육학과	235
	사회체육학과	70		경기지도학과	30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35		사회체육학과	60
	특수체육교육과	35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30
	레저스포츠산업학과	30		특수체육교육과	30
	운동건강관리학과	35		스포츠산업학과	30
	노인체육복지학과	35		운동건강관리학과	30
	생활무용학과	35	스포츠문화예술대학	공연예술학과	30
합계	태권도학과	35		태권도학과	30
	합계	590	합계	합계	535

2년 동안의 행보에 비해 지원은 열악

한국체대 실용무용 학생들은 여건이 불충분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대내·외적으로 전공역량 강화와 성장 가능성의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용무용 2023년 수집 모집에서 실용무용 전공이 ‘공연예술학과 실기우수자 전형’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인

35.17:1을 기록했다. 높아진 경쟁률을 통해 한국체대 실용무용의 인지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실용무용 학우들의 학업 성취도 또한 높다. 작년 1학기, 2학기의 교내성적 장학금 대상자로 실용무용 학생들이 선정됐다.

· 교내 주요 활동

- 한국체육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제38기 원우회장 취임식 및 임원위촉식 축하공연
- 제22회 한국체육대학교 총장배 전국 초·중·고등학생 무용경연대회 (공쿨) 스텝
- 2022 한국체육대학교 천마축제 1일차 학과공연 공연예술학과 대표 출연, 1등 수상

· 교외 주요 활동

- 공연 〈해녀〉출연 (CKL Stage,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 Mnet MAMA 엔하이폰 안무 시안 댄서 참여
- 〈멜론뮤직어워드〉르세라핌 댄서 참여
- 〈멜론뮤직어워드〉뉴진스 댄서 출연
- 비비 안무 시안 댄서 참여
- 아이폰 광고 촬영
- 행사 LUXURY BALL vol.1 우승
- 경연대회 Haru competition 2021 우승
- 배틀 All that street vol.1 우승
- 배틀 Hiphopers night another 우승

· 그 외 활동

- 배틀 Kide Next Door 2등 수상
- 배틀 breaking seoul 청소년부 3등 수상 (대한체육회-대한댄스스포츠연맹+나이지리 주최)
- 배틀 〈of house〉best 16 수상
- 배틀 〈rookies game〉finalist - best 16 수상

출발만 화려했던 한우리 공연단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실용무용이 생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학보사에서 그 이유를 근거를 통해 분석했다.

교내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은 여러 조직의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중요한 점은 안용규 총장(이하 안 총장)이 해당 논의에 참여했으며 조직의 최고 권한자라는 점이다. 따라서 안 총장이 구조조정 회의에서 '명칭변경', '실용무용 전공 신설'을 찬성한 이유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안 총장의 무용 및 예술 관련 공약에서 찾아보았다.

제1대 총장선거 당시 안 총장은 대학 발전 방안의 산하 관련 협력방안 공약 중 본교 스포츠 스타를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마케팅, ‘한우리 에이전시’ 설립 및 운영 계획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재정확충 방안에서 ‘공연단 창단 : 상설공연을 통한 수익 창출’과 같은 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26일, ‘한우리 공연단’의 창단식(사진)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연단의 활동 이력은 존재하지 않고, 새로운 총장의 취임과 함께 앞으로의 존재 여부도 정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두 가지 문제

생활무용학과가 공연예술학과로 개편되고 다음 해인 2021년부터 학교는 실용무용 전공 수시모집을 시작했다. 개편이 결정된 날짜와 수시모집 기간 사이에는 약 1년의 기간이 있었다. 그 기간 동안 실기 장소 마련, 감사 임용 등 그에 대한 준비를 마쳐야 했다. 그러나 1년 동안 이러한 기본 사항들이 확립되지 않았고, 피해는 자연스레 실용무용 전공 학생들이 받게 되었다.

연습할 공간의 부족

실용무용 전공 전용 무용실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현재 한국체육대학교 체육관에는 총 3개의 무용실이 존재한다. 예전에는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전공이 각각 한 개의 무용실을 배정받고 이용했다. 그러나 전공이 4개로 늘어난 지금 실용무용 학생들의 전용 연습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용무용 전공 과대표 김수민 학우(공연예술 21)는 “전용 무용실이 없어서 공연 준비나 연습할 때 사비를 모아 사설 연습실을 이용했다”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학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의 일정을 반영하여 무용실 사용일과 시간대를 정해준 바 있다. 그러나 실용무용 학생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여러 파트로 나뉘다. 그리고 학생들은 각자 파트에 맞는 외부 소속 팀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인원의 시간 조율이 어렵다. 결국, 무용실을 사용하려면 늦은 새벽 시간이어야 하는데, 한국체대 건물은 원칙적으로 10시에 폐쇄한다.

물론 전용 무용실이 있다면 교내에서 남은 시간을 쪼개어 제약 없이 연습할 수 있다. 그러나 실용무용 전공 학생은 타 전공의 이용 시간에 무용실의 반을 사용하거나 남은 시간에 무용실을 사용하는 것은 꺼려진다고 말한다. 이들은 “실용무용 종목 중 몇몇 분야는 신발은 신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 이는 무용실 바닥의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전공의 학생이나 교수님들의 눈치를 보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필승관에 있는 다목적실의 이용도 대안으로 마련했지만, 이 또한 문제가 발생했다. 다목적실은 평생교육원 수업이나, 댄스스포츠 강의 등 여러 사항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에 제약이 있다. 더 큰 문제는 부상 가능성이 있는 바닥이다. 다목적실의 바닥은 중간중간 흠이 파여진 마룻바닥이다. 역동적인 동작이 많은 실용무용의 특성상 파여 있는 흠은 부상을 야기한다. 실제로 실용무용 전공 학생 중 한 명이 다목적실에서 연습 중 부상을 입은 사례가 있다.

강사 임용과 전문성 문제

현재 실용무용 전공은 외부 강사를 채용하여 전공 실기 수업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전공 역량 강화를 위해 본인의 세부 전공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1, 2학년을 구분하여 각각의 전공에 맞는 강사를 채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더군다나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따라 실용무용 전공 학생들이 원하는 강사를 채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